



Built to Lead

즉시 배포용: 2016 년 11 월 17 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ANDREW M. CUOMO 주지사의 최근 편견 및 차별 사건에 대한 성명서

“뉴욕과 미국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전제 하에 설립되었습니다. 선거 뒤 몇 주 간, 이 전제는 너무 많은 뉴욕 주민과 미국인에게 공허한 외침으로 남았습니다.

증오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, 이 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지난 밤, KKK 를 지지하는 전단지 가 팻처그(Patchogue)의 자동차에 배포되었습니다. 오늘 아침, 맨해튼(Manhattan)의 B 열차에서 나치 문양이 발견되었습니다. 이것들은 가장 최근의 사건에 불과합니다. 우리 행정부는 소수자와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는 다수의 증오 범죄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.

저는 모든 공무원 및 집단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비난하고 또 부인할 것을 촉구합니다. 또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에게 법정 최고 형량을 선고할 것을 서약하길 촉구합니다.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‘미국다움’을 위협하는 위험한 새 방임주의에 협조하는 것입니다.

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. 이러한 증오와 불관용 행위는 뉴욕이 상징하는 모든 것에 어긋납니다. 우리는 개방적 태도로 이민자 세대를 환영할 것입니다. 우리 주는 계속해서 자랑스러운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. 우리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, 이 증오의 말들은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. 우리는 이 불관용에 맞서 강력히 연대할 것입니다. 또한 전 세계에 우리는 하나이고, 하나의 가족이며 하나의 뉴욕임을 보여 줄 것입니다.”

이번 주 초, Cuomo 주지사는 편견 및 차별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 직통 전화를 개설하였습니다. 이 직통전화는 뉴욕 주민을 보호하려는 주의 노력의 또 다른 일환이며, 편견적 처우를 받은 사람들이 인권국(Division of Human Rights, DHR)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.

편견에 기반한 위협이나 폭력 및 차별을 경험하신 뉴욕 주민들께서는 인권국(DHR)의 무료 직통전화 (888) 392-3644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직통전화의 운영 시간은 월요일 -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입니다. 범죄를 신고하려 하시거나 본인의 안전을 우려하실 만한 상황이 생긴다면 즉시 911 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